

C.S. Lewis- 사랑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성은 일원교회 담임목사

1. 서론

영,미권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C.S 루이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그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C.S.Lewis의 신학(1948);C.S.Lewis의 기독교적 세계(1965); C.S.Lewis,신앙의 수호자(1967); C.S.Lewis의 소설에 나타나는 구원의 이미지(1978); C.S.루이스와 오웬 비벌트와의 ‘논쟁’에 대하여(1978) ;C.S.Lewis의 성경관(1980); 인간의 회복: C.S.Lewis와 과학주의에 대한 항소(1983년);C.S.Lewis와 그의 합리적 종교의 탐구(1985); C.S.Lewis 작품들 속에서의 “성령”(1989);쉐도우 랜드의 빛-진짜 C.S.Lewis를 보호함(1994)등이다.¹⁾

가장 먼저 루이스에 대한 글을 발표한 사람은 채드 웰시(Chad Walsh)이다. 그는 「회의주의자들의 사도:C.S.루이스」라는 책을 썼고 루이스의 사후 「슬픔의 관찰」을 발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루이스에 대한 연구는 킬비와 후퍼에 의해 주도되었다. 킬비(Clyde S. Kilby)는 알리노이 주의 휘튼 대학 영어 교수이며 루이스에 대한 글을 많이 발표하고 루이스 작품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다. 후퍼(Walter Hooper)는 루이스의 개인 비서였으며 C.S.Lewis 제단의 이사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장 학자들이 더욱 많이 루이스를 연구하고있으며 최근에는 후퍼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여 루이스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비판은 루이스 사후에 나온 책이 진짜 루이스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Kathryn Lindskoog²⁾) 현재 루이스의 것으로 주장되는 작품은 50여편이 넘으며 아직까지 루이스 전집은 나오지 않았다. 루이스의 것으로 주장되지만 비판받는 작품은 Boxen,Dark Tower등인데 이들중 「박센」은 루이스가 어렸을 때 쓴 작품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다크 타워」는 루이스 특유의 환상 소설로 선전되고 있다.

또한 영국 성공회 신부이자 학자인 리처드 해리스가 쓴 C.S.Lewis: The Man and His God(1987)과 피터 샤켈이 편집한 루이스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 모음인 The Longing for a Form(1979)이 있다. 리처드 해리스의 글은 찰스 윌리엄스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연속 강연의 일부분으로 C.S.Lewis에 대해 강연한 것과 B.B.C 라디오에서 루이스에 대해 6 시간 강의한 것을 모아서 낸 글이다. 리처드 해리스 자신은 루이스보다는 루이스의 친구인 Austin Farrer에 대해 더 호감을 느끼는

1). Colin Duriez,mThe C.S.Lewis Handbook,(Northon Yorkshire:Monarch) 이 책에서는 루이스의 작품 속의 인물, 주제등에 대해 사전식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루이스 관련 문헌들을 담고 있다. 위의 실린 문헌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2).Kathryn Lindskoog, Light in the Shadow Lands: Protecting The Real C.S.Lewis.(Oregon:Questar,1994)

듯하다. 3)

후자의 책에서는 루이스 연구자들이 총집결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저명한 루이스 연구자들의 글을 편집하였다. 아주 흥미롭게도 루이스의 작품들에 대한 문학적, 양식적 연구이다.

루이스는 기독교 영문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었으며 신학자들은 그의 신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1948년에 나온 루이스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북침례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⁴⁾

C.S.Lewis(Clive Staples Lewis)의 생애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그가 쓴 자서전인 “Surprized By Joy(1955)”와 그의 책 “슬픔의 관찰”의 후기인 채드 웰시⁵⁾의 글, 그리고 “Letters To An American Woman”의 서문인 클라이드 S 칼비⁶⁾의 글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그 외에 우드브릿지 교수의 교회사 인물 평가⁷⁾ 중에 그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백과사전인 I.V.P NEW DICTIONARY OF THEOLOGY와 Walter A. Elwell이 편집한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에서 C.S.Lewis에 대한 항목을 찾아보는 일도 유익하다.

그외에도 그의 동료들이 그에 관해 쓴 에세이집인 Light on C.S.Lewis (London, 1965)과 앞서 인용한 Como의 글 그리고 그의 형 외렌이 편집한 루이스의 편지 모음인 Letters of C.S.Lewis(London ,1966)등이 그의 생애에 관한 문헌들이다.

2. 본론

가. 인간의 사랑

3). 오스틴 패러는 루이스의 죽음을 본 그의 목사이다. 리차드 해리스는 The One Genius: Through the Year with Austin Farrer, SPCK, 1987,이라는 작품을 썼다. 해리스는 패러가 루이스보다 뛰어났지만 더 감정이 풍부하고 더 부드러웠기 때문에 루이스만큼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

Richard Harries, 9장의 주 10번.

4). Como. ibid.p.218.

5). 채드 웰시는 미 위스킨신주 벨로잇 대학에 주거하는 영어 교수이며 작가이다. C.S. 루이스처럼 그도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한 자이다. 그는 C.S.루이스 연구 작가로서 루이스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인 「C.S. 루이스 :회의주의자들의 사도」(C.S.Lewis:Apostle to the Skeptics)를 펴냈다.

6). Clyde S. Kilby는 휘튼 대학의 영어과 교수이며 그 대학에 있는 C.S.Lewis Collection의 Curater이다. 그는 잘 알려진 기독교인 학자이며 루이스에 대한 지도급인 연구자이다. 테네시주의 존슨에서 1902년에 태어났으며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5년에 휘튼대학으로 갔다. 그의 연구 작품은 다음과 같다. The Christian World of C.S.Lewis,1964; (editor) A Mind Awake: An Anthology of C.S.Lewis,1970; (editor) C.S.Lewis,Letters to an American Lady,1967;(with Douglas Gilbert) C.S.Lewis:Images of His World,1973;Images of Salvation in the Fiction C.S.Lewis,1978.

7)John D. Woodbridge,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Church, (Chicago: Moody Press,1988) pp.356-360. 특별히 이 책에서는 20세기 후반의 인물로 3명을 들고 있는데 프란시스 쉼퍼, 빌리 그래함, 그리고 C.S.루이스이다.

우리가 루이스의 사상을 다루려 한다면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 루이스가 많은 글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그는 「사랑의 우화」(1936)라는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1960년에는 「네 가지 사랑」⁸⁾이라는 신학적 작품을 내놓았다. 사랑의 우화라는 작품은 중세 문학에 있어서 연애라는 요소가 우화의 요소와 함께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밝히는 학문적인 글이므로 우리의 논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우리는 「네 가지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사실은 5가지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한 사랑(Likings and and Loves for the Sub-Human), 애정(Affection), 우정(Friendship), 에로스(Eros), 자비(Charity) 이상 5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애정의 아래에 인간 이하의 것 즉 음식물, 자연, 국가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둬서 그것을 포함시킨다면 4가지 사랑이 되는 것이다. 루이스가 사랑을 4가지로 크게 나눈 것은 헬라어의 4단어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가 그것이다.

루이스는 서론에서 사랑이 받는 사랑(Need-love)과 주는 사랑(Gift-love)이 있다고 구분한다. 받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고 주는 사랑은 하나님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존재적 차이로 말미암아 받는 사랑도 인정해야 하며 반드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낙인찍을 수는 없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명제에서 이 책을 출발하며 루이스가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염두에 둔 격언은 “사랑은 신(a god)이기를 그만 둘 때 비로소 악마이기를 그만 둔다”⁹⁾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은 스스로를 신적인 권위로 높여 악마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이렇게 균형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 말씀이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간교하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적인 사랑을 숭배해서도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1.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한 애착

즐거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즐거움은 욕구의 즐거움과 감상의 즐거움이 있는데 욕구의 즐거움은 받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지만 감상의 즐거움은 우리의 이익과는 별개로 그것이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것은 “매우 좋다”고 공언하는 즐거움이다. 루이스는 이 감상적 즐거움의 발견에서 자신이 처음 사랑을 두 요소로 구분한 것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사랑은 세 요소로 나누인다.

8) C.S.Lewis, "The Four Love" (New York: Harcourt,Brace,1960)

9).ibid.p8.

“받는 사랑은 우리의 빈곤으로부터 하나님께 의친다. 주는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심지어는 그를 위하여 고통 받기를 원한다. 감상적 사랑은 ‘당신의 위대한 영광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 받는 사랑은 여자에 대하여 ‘그녀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 주는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과 위안, 보호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귀까지도 주기를 원한다. 감상적 사랑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움을 기뻐하면서 만약 그녀를 잃는다 하더라도 그런 놀라움은 결코 완전히는 없어질 수 없다는 기분을 느끼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전혀 그녀를 만나지 못했던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기분을 느낀다.”¹⁰⁾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사랑 중에서 자연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사랑만을 다루고 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이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악마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자연을 피해야 한다. 고 말한다. 국가에 대한 사랑을 다루면서 루이스는 국수주의는 물론 제국주의적 생각, 다시 말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지나쳐 자신의 나라가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책임을 가진다고 정말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랑은 악마적이 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지적은 당시 1,2 차 대전을 겪으면서 서구에 팽배했던 사고를 비꼬는 말이다.

2. 애정

애정은 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따스함, 친근함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이 애정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정도 포함된다. 애정은 겸손하다. 애정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애정은 은밀하고 수줍은 얼굴을 하며 자랑하거나 크게 자주 발설된다면 그것은 이미 애정이 아니다.

애정이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슬며시 숨어 있거나 슬쩍 나타나는 것이다. 애정은 수수하고 적나라하며 사사로운 것들과 함께 한다. 부드러운 실내화, 오랜 의복들, 오랜 한담들,.. 이런 것들 속에 애정이 숨어있는 것이다.¹¹⁾

애정의 특징은 다른 사랑들 예를 들면 에로스와 우정들에 섞이고 그 사랑들을 강화시키며 옷입힌다는 점이다. 애정은 스스로가 사랑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랑을 적용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애정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1. 서로 걸맞지 않는 자들을 결합시킬 수 있다. 2. 애정은 우리의 정신을 넓혀준다. 3. 자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10). ibid. p.19.

11). ibid., 46.

이런 성질들때문에 빅토리아 왕조의 소설가들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하여 그 사랑이 완전히 발전하면 기독교적 사랑과 똑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그 것은 불가능하다.

루이스는 모든 자연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있는 적대심을 지적한다. 그리고 애정이 쉽게 분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애정은 공적이 없이 생긴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그때문에 악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그 애정을 이용하고,요구할 수 있다. 2.또 한편 애정은 깊어질 수록 질투로 맹렬해진다. 완전히 믿지 않는 가정의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인 된 그 중의 한 사람에게 갖는 증오심은 맹렬하다. ‘자신의’ 일원이던 누군가를 빼앗겼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3.주는 사랑으로서 애정은 가끔 무자비해진다.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흔히 모성애에서 발견되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이타적이라고 간주하고 받는 자가 결핍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하며 게걸스러운 정도로 필요함 받기를 원한다.주는 것의 적절한 목표는 그것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루이스는 흔히 지나치기 어려운 점 즉 주는 애정의 무자비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의 책 「대결별」¹²⁾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노부인을 등장시켜 사실은 그 노부인은 자신의 것으로 그 아들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 노부인은 그는 내 아들,자신의 것이기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다. 또 본문에서는 동물애호가들이 혹 잘못된 애정때문에 그토록 동물에 애착을 갖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고있다.

그러나 루이스가 비판론자는 아니다. 그는 일반 상식과 타협 그리고 “점잖은 예절”이 있다면 애정은 행복을 만들어 내게 된다고 말한다. 애정은 무언가 다른 것이 첨가되기만 하면 악마가 되지 않는다. 애정은 결코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말로 결론을 내린다.

3. 우정

루이스는 이 우정이라는 사랑이 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덕이요 칭송받은 행복이었으나 현대에는 애정과 에로스에 대한 칭송에 가리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¹³⁾ 그 이유는 우정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정은 애정이나 에로스보다 비교하여 볼 때 에로스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아무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애정이 없었다면 우리들 중의 어느 누구도 양육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덜 자연적이며 가장 덜 본능적이며 덜 필요한 것이다. 고대와 중세에 우정이 빛을 발했던 이유도 알 수 있다. 당시의 사상이 금욕주의와 세상을 벗어나려고

12).C.S.Lewis, "The Great Divorce" (New York: Macmillan,1946)p.118.

13).C.S.Lewis, "The Four Love" (New York: Harcourt,Brace,1960)p.57.

하는 것이었는데 그결과 가장 독립적이며 자연을 무시하는 사랑이 가장 칭송을 받게 되었다. 낭만주의가 일어나서 “자연으로의 복귀”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또한 감성을 받들게 되었고 결국 혈통적으로 약한 신, 곧 본능을 숭상하게까지 되었다고 루이스는 지적한다.

(참고: 루이스의 이런 지적은 프란시스 쉐퍼가 서구 정신사를 분석하면서 보여준 예리함을 생각나게 한다. 프란시스 쉐퍼와의 차이는 루이스의 글 쓰는 방식은 영국적 전통, 즉 몽테뉴, 찰스 램등의 수필의 전통을 잇기 때문이다. 루이스의 글은 문장가로서의 글이다. 설명문으로서 미리 틀을 잡아서 기록하고 하나 하나 제목을 들어 설명하기보다는 거미가 실을 뽑아내듯 논리의 순서를 따라 글을 쓰고 있다. 루이스의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듯하다. 프란시스 쉐퍼는 제목을 매우 작은 부분까지 나누어 씬으로서 전체를 설명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정의 두 번째 특징은 참된 우정은 사랑 가운데 가장 질투가 없다는 것이다. 두 친구는 가까이 세 사람이 되며, 세 명이 네 명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랑에서는 “나눔다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이 특징에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천국에는 무수히 많은 (어느 누구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받은 무리들이 각자 하나님에 대한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영혼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며, 나머지 모든 영혼들에게 자신의 그 독특한 환상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 기자가 전하는 바와 같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룹들이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사 6:3)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의 떡을 더 많이 나누면 더 많이 나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¹⁴⁾

천국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우정의 모습 즉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것에 대해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각각의 구속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一面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알고 더 감격스럽게 알고 영원히 찬미할 그런 유일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개인들을 차이있게 창조한 이유다. 각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되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싶으신 것이다. 이 각자의 차이성은 서로간에 해가 되기는 커녕 피조물 상호간 사랑의 축복의 의미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개성에서 흘러나오는 교제가 되게 한다.

만약 모두가 하나님을 같은 방법으로 경험하고 일률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의 찬미 소리는 교향악이 아니고 여러 악기가 아니고 꼭 같은 단일곡을 연주 하는 단조로운 관현악이

14) *ibid.*, 79.

되고 말 것이다. 15)

루이스는 우정과 동료 의식을 구분하면서 동료 의식 즉 함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우정의 모체가 되는 것이지만 우정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믿었던 어떤 통찰력이나 관심 때로는 미각을 자기 동료가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싹트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서로 우정을 나누는 자들은 비밀을 소유한다.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뭘지 모를 장벽이 있음도 알게 되며 그들은 기꺼이 그 사실을 기뻐할 것이며 처음의 두 사람은 기꺼이 제 삼의 친구를 찾아나서게 될 것이다.¹⁶⁾

우정의 마지막 특징은 우정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형상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우정은 천사와도 같은 관계성이기 때문이다. 우정은 사람을 강한 결속력으로 묶는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외부 세계의 평가가 아니라 내부 그룹의 평가이며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해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강화시킨다. 아이들에게 또래 집단에서 축출되는 위협이 큰 만큼 초대 기독교인들도 외부 세계의 견해는 듣지 않고 무엇보다 “형제들”의 사랑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악한 모임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강화시킨다. 우정은 상극적이다.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만들지만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만든다.

우정도 다른 사랑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외부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일은 정당하며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외부의 모든 일에 다 무관심하며 경멸할 수도 있다. 귀족 계급에 있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이런 나쁜 모습이 보였다. 우정은 다른 것을 배타하면서 시작되어 타락하게 된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정을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모임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서로를 택한 것이라”고 의도하시듯, 우정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며 우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잔치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손님을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바라건대 그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언제나 그래야 한다. 우리의 주님이 없이 우리끼리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¹⁷⁾

15).C.S.Lewis,The Problem of Pain,p.179.

16).루이스는 특별히 우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그에게는 Inking이라는 함께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 모임에는 「반지 전쟁」을 쓴 J.R.R.톨킨엔과 기독교 소설가 찰스 윌리엄스가 있었다. 특히 찰스 윌리엄스를 매우 좋아했으며 그가 루이스보다 먼저 죽었을 때 슬퍼한 내용이 알려져있다. 때로 루이스는 여성을 혐오한다고 알려졌을 만큼 남성들간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채드 웰시)

라고 말한다.

4. 에로스

루이스는 에로스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적 욕구와는 구별하고자 한다. 성적 욕구는 비너스라고 하자고 제의한다. 성은 에로스가 없어도 또는 에로스의 일부분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욕구는 에로스가 없어도 그것, 섹스 그 자체를 원한다. 그러나 에로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루이스는 에로스가 영적 위험을 갖는 것은 비너스의 과도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혼을 파괴시키는 감각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너스를 지나치게 엄숙하게 다루는 것 때문이라고 말한다. 루이스도 성의 심각한 의미를 말한다. 1. 신학적 의미-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것 2. 비신학적인 의미-자연적인 예식 3. 도덕적인 의미-많은 의무가 되어있음, 부모가 됨 4. 감정적인 의미 등이다. 그러나 비너스에 대하여 완전히 심각해지는 일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비너스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는 천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한 쪽으로는 수코양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프로이드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루이스는 비너스를 가능케 하는 **육체에 대해**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자신은 성 프란시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 세 가지 견해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거나 육체는 “배설물 꾸러미”라는 견해와 신 이교주의자들이나 나체주의자들, 악한 신의 추종자들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견해 그리고 육체를 “나귀 형제(Brother Ass)”라고 불렀던 프란시스의 견해이다.¹⁸⁾

나귀라는 말이 그야말로 올바른 말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정신으로 당나귀를 숭배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귀는 유용하고, 튼튼하며, 게으르고, 완고하며, 끈기있고, 사랑스러우며, 화를 내게 하는 동물이다. 때로는 회초리감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귀여워서 당근을 주게도 된다. 가련하게 그리고 터무니없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육체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육체가 갖는 기능 가운데 한 가지는 익살광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육체와의 삶은 없는 것이다.

에로스는 행복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행복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불행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표적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행복을 줄 가망성이 없다는

17). C.S.Lewis, 네가지 사랑(서울 :생명의 말씀사,1983) p.112.

18).ibid. p.125.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도 에로스는 전혀 지체함 없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이별보다는 낫지. 그녀 없이 행복하기 보다는 그녀와 함께 불행한 것이 낫지.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버린다면 깨져버리면 좋겠어.” 만일 우리 속에 있는 음성이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에로스의 음성이 아니다.

에로스는 또한 자신을 신처럼 내세우는 경향이 있음으로 해서 위험하다. 에로스에는 비이기적인 속성이 있다. 전적인 위임, 자기의 행복에 대한 무시, 자기애에 대한 초월성 등은 마치 영원한 세계에서 온 메세지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에로스가 가장 신처럼 말할 때에도 그 에로스의 음성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에로스는 언제나 사랑에 빠지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꿈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은 사랑하는 대상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에로스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다.

에로스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충성하기를 바란다. 즉 에로스는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죄과를 경감시켜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순교자와도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랑은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에로스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상, 에로스의 신은 죽게 되거나 또는 마귀가 되어버릴 것이다.

5. 자비(아가페)

지금까지의 사랑을 말하며 그는 정원의 비유를 든다. 19)

1. 정원은 아름답다.
2. 그러나 정원사는 그 정원을 손질하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3. 그 정원의 아름다움은 정원사의 공적보다는 꽃들을 피게 한 자연의 공적이다.
4. 정원사의 공적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1. 우리의 본성이라는 정원을 심으셨다.
2. 사랑이 자라고 꽃피우며 열매 맺게 하실 때 그 사랑을 “옷 입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지정하셨다.
3.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기실 하나님의 공적이다.
4. 그러나 우리의 노동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자비의 문제를 다루면서 적수의 문제를 다룬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늘 (자연적인) 사랑이 너무 커진 것 같다고 소리 높여 외쳐왔다. 20)

19) . ibid. pp. 143-146 .

20) . ibid. p. 146 .

그들의 생각에는 이웃을 너무 적게 사랑하게 될 위험이 그들을 이상처럼 사랑하게 될 위험처럼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아내와 어머니, 어린아이 그리고 친구 속에서 하나님께 적수가 될지도 모르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눅 14:26)

친구들을 터무니없이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것을 억지로라도 그만두는 것이다. 의지를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어거스틴의 방법을 반대한다. 어거스틴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영원하지 못할 존재를 사랑하는 일은 큰 아픔을 주기 때문에 상실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루이스는 그 견해가 스토아적 견해라고 이야기 하면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면서도 특별한 의미에서 한 제자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예로 들며 논의를 더욱 진행시킨다.²¹⁾

나는,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거슬리는 것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랑보다는 오히려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보호적인 무애(無愛)로 믿는다. 그것은 마치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숨겨두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라고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의 가장 가깝고 친애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 사이를 가로막을 때,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들을 엎드려뜨리며 그들을 실격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자연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형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은 지비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 버린다.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랑도 지나간다.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랑들은 어느 정도 어느 형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포섭되었어야지만,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었어야만, 즉 그것들 속에 있는 자연적인 요소가 변형되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만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음으로써만,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 또는 선하심을 나타냄으로써만 지상에서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자극했던 것이다. ...(중략)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고한 사랑에 대한 지상의 경험에 이미 관계하고 계셨으며 그 사랑을 만드셨고, 유지하셨고, 매 순간 그 속에서 움직이신 것이다.²²⁾

21). *ibid*.p.150.

22). *ibid.*, 171.

천국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초상화에서 얼굴에게로, 작은 개울로부터 샘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만드신 피조물에게서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키고 말 것이다.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 모두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비 속에는 몇 가지 은총이 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초자연적인 받는 사랑과 서로서로에 대한 초자연적인 받는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불 만한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음, 유쾌한 동냥꾼이 됨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더 쓸모없는 자기를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는 이웃들도 있다. 하나님의 주신 자비 속의 제 3 은혜는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을 향한 초자연적인 감상적 사랑을 일깨울 수 있으신 것이다.”²³⁾

3. 결론

우리는 이 4 개념에 대해 고대 신학자들도 익히 알아왔음을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가 기독교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설교로 들어왔다.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이 4가지 사랑이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각 시대마다 특별히 칭찬하는 사랑의 유형이 있으며 또 무시되는 사랑의 유형도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각 사랑이 타락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애정, 우정, 에로스 모든 것이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각각 그 사랑의 유형들이 결핍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루이스는 아가페 외에 에로스, 애정, 우정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은총이며 그것들이 악마적으로 변형되지 않게 다듬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 이 모든 자연적인 사랑은 스스로 하나님노릇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적수라고 보고 아가페를 제외한 모든 자연적인 사랑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는 반대한다. 그럴 일면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경향은 사랑을 많이 하기 보다는 사랑을 적게 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인 사랑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되어지기를 요구 받고 있다.

루이스 이후 에리히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다. 그러나 에리히 프롬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 심리학을 보다 온건하게 사회에 적용하는 사회심리학자이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책은 기독교인들이 읽기에 부적합하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소책자 “오염된 사랑을 찾아서(송인규, IVP)”를 통해 사랑에 대한 통찰을 시도했는데 그 책자에서도 에리히 프롬의 논지를 빌어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논조에 의하면

23) .ibid., 172

사랑의 희생성을 진정으로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이므로 에로스적인 사랑보다는 아가페가 낫다는 것이다.

나는 루이스의 견해가 에리히 프롬이나 송인규 그리고 현재의 상업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론 들을 모두 논의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대 독자들에게 루이스의 책은 쉽게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루이스가 자신의 결론을 1,2,3,4 이렇게 내려주고 그 결론에 대한 예증을 들어주는 식으로 썼다면 보다 일목요연한 글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길게 논의시키고 그 문제의 해답이 나올 때까지는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는다. 루이스의 글은 수학의 증명을 보는 듯하다. 보다 인스턴트한 진리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루이스의 문체는 지루하고 어렵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루이스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버리지 않을 듯하다. 그는 현대적이기보다는 중세적이며 현대적인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다.